

MMPI 척도로 본 한의대생의 형제자매관계와 성격특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하지원, 정진형, 김보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iblings Relation and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the Oriental Medical University Students by MMPI Profiling

Ji-Won Ha, Jin-Heong Jung, Bo-Kyung Kim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on MMPI scale, and the siblings relation, number of current family living with, gender and age of the Oriental Medical University students.

Methods :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MMPI profiling and gathered information regarding the sibling relation of the subjects. We studi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measur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MMPI scales and the subjects' gender and age.

Results :

1. The group without siblings had higher STY figures than the groups with siblings.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MPI profiles among the only child group, first-born group, second-born group, and third-born group. **3.** The married group showed higher Pd, Pt, Sc, BDL figures than the unmarried group. **4.** A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currently living with increased, the BDL and STY figures decreased. **5.** The male group had higher Hs, Hy, Pa, Ma, NAR, BDL, ANT, CPS, PAR, and SZD figures, while the female group had higher D, Pd, Mf, Pt, HST, PAG, and DEP figures. **6.** As the subjects' age increased, the figure of Hs, D, Pt, Sc, Si, AVD, and SZD increased, while the HST figure decreased.

Conclusions :

By the above results, we can assume that the sibling relations and the order one is born in the family does not affect one's personality much in grown-ups; whereas the gender and age affect the personality.

Key Words:

The siblings relation, MMPI, First-born,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 서론

형제자매는 부모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형제자매들은 동일한 부모의 자녀들이므로 서로 유전자를 공유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므로 온정과 갈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보살피고, 상의하고, 돕고, 의논하고, 의지하는 온정적, 애정적, 지원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혹은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우월해지기 위해 갈등하고 경쟁할 수도 있는 양가적 관계를 형성한다¹⁾.

또한 형제가 있을 때 본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기대되는 가정 내 역할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맏이는 동생들을 돌볼 것이, 막내는 좀 더 애교가 많고 사교적인 역할을 할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된다. 같은 부모의 유전적 기질을 공유하는 형제자매 사이에 태어난 순서에 따라 다른 역할이 정해지고, 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양육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2008년에 부산시 초등학교 366명, 중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출생 순위는 첫째집단일 경우, 성구성은 이성형제자매일 경우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 1954~1973년 사이 출생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맏이(first-born)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맏형의 임금이 남동생들의 임금에 비해 5.3~6.9% 높으며, 맏언니의 임금이 여동생들에 비해 8.8~9.9% 높았다³⁾.

본 연구는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있다면 형제 내 순위에 따라 성장 후 나타나는 성격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MMPI와 가계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가 불충분하거나 형제자매 정보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05명의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특성과 형제자매 유무 여부, 그리고 형제내 위치, 현재 동거하는 가족 수(본인 제외), 혼인여부, 나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계 처리한 결과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OO대학교 한의학과 4학년 학생 중 조사에 동의하고 형제자매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105명을 상대로 MMPI 프로파일을 수집하였고, 개인력 조사를 통해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MMPI 검사

MMPI는 김⁴⁾의 검사 요강에 따라 566문항을 실시하였으며, 채점은 전영만이 개발한 MMPI전문가 2002 프로그램으로 하여 원점수를 T점수로 환산한 4개의 타당도 척도, 10개의 임상척도 및 11개의 성격장애 척도를 이용하였다⁵⁾.

MMPI는 질문지형 성격검사로 5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사자가 “그렇다”, “아니다”의 두 답변 중 하나를 택하여 반응하게 되어있다. 10개의 임상척도는 피검사자의 비정상 행동 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Hs(Hypochondriasis, 건강염려증), D(Depression, 우울증), Hy(Hysteria, 히스테리), Pd(Psychopathic Deviate, 반사회성), Mf(Masculinity-Femininity, 남성특성-여성특성), Pa(Paranoia, 편집증), Pt(Psychasthenia, 강박증), Sc Schizophrenia, 정신분열증), Ma(Hypomania, 경조증), Si(Social introversion, 내향성)로 되어있다. 성격장애 척도는 HST(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연기성 성격장애), NAR(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자기애성 성격장애), BDL(Borderline person-

ality disorder, 경계선적 성격장애), ANT(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반사회성 성격장애), CPS(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강박성 성격장애), PAG(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disorder,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PAR(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편집성 성격장애), DEP(Dependant personality disorder, 의존성 성격장애), STY(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AVD(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회피성 성격장애), SZD(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에 대한 11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⁶⁾.

2) 형제자매 관계 조사

MMPI 검사용지를 작성할 당시, 대상 학생들의 동의하에 본인 정보란에 별개로 형제자매 관계를 순서대로 쓰고,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따로 쓰게 하였다. 예를 들어 형과 여동생이 있으며 현재 자취중인 남자학생의 경우 “형제자매 : 형, 본인, 여동생. /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 본인” 으로 쓰게 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v.19(Korea, (주)데이타솔루션)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집단 중 서로 다른 형제 집단(외동, 첫째, 중간, 막내)간의 MMPI 척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사후분석은 생략하였다. 대상자의 나이와 각 MMPI척도 사이의 관계와 대상자와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수(본인제외)와 각 MMPI 척도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을 실시하여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별, 형제 유무 여부, 혼인여부에 따른 MMPI 척도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 < 0.05$ 인 경우로 하였다.

III. 결 과

1. 검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 105명으로 남성 62명 59.05%, 여성 43명 40.95%이며, 평균연령은 27.54 ± 3.90 세였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8명 7.62%이고, 미혼이 97명 92.38%이었다. 형제가 있는 경우가 95명 90.48%, 없는 경우가 10명 9.52%였다. 대상자 중 본인을 포함하여 3형제 이상의 형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고, 형제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가 52명 49.52%, 둘째인 경우가 37명 35.24%, 셋째인 경우가 6명 5.71%였다 (Table I).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gender	male	62	59.05
	female	43	40.95
age(year)	average	27,54±3,90	
marriage	unmarried	97	92,38
	married	8	7,62
siblings	only child	10	9,52
	first born	52	49,52
	second born	37	35,24
	third born	6	5,71
total		105	100

2. 전체 검사 대상자들의 MMPI 성격 척도

대상자들의 MMPI의 결과 나타난 성격척도의 산출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가장 높게 나타난 척도는 건강염려증(Hs) 척도였고,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강박성 성격장애 척도였다(Table II).

3. 검사 대상자들의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MMPI 척도의 차이

검사대상자들 중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가 95명이었고, 형제 또는 자매가 없는 경우가 10명이었다. 이들 그룹 간에 MMPI 척도 값의 유의한 차이

Table II. Average of MMPI profile(n=105)

Factor	Average±SD
Hs	54.30±8.19
D	50.40±9.14
Hy	52.53±9.04
Pd	51.06±10.21
Mf	49.68±10.37
Pa	47.90±9.21
Pt	48.09±8.15
Sc	44.09±8.15
Ma	44.09±8.15
Si	44.23±9.44
HST	51.50±9.16
NAR	51.71±9.33
BDL	44.89±9.43
ANT	46.60±8.60
CPS	42.91±9.58
PAG	43.82±9.02
PAR	44.55±8.31
DEP	45.04±8.30
STY	43.04±8.11
AVD	46.35±9.22
SZD	48.44±9.25

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형제가 없는 집단에서 STY 척도가 형제가 있는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른 척도 값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형제의 유무 여부와 MMPI의 결과를 교차 분석한 카이제곱 검정 값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III).

4. 형제내 위치(외동/첫째/둘째/셋째)에 따른 MMPI 척도의 차이

검사대상자들 중 형제 또는 자매가 없는 그룹(10명), 형제가 있는 그룹 가운데서 첫째인 경우(52명), 둘째인 경우(37명), 셋째인 경우(6명)를 나누어 각 그룹 간 MMPI 척도 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Table III. the Difference of the MMPI Scale between the subjects with no siblings and the subjects with siblings(Chi-square test)(n=105)

Factor	p-value
Hs	0.757
D	0.919
Hy	0.986
Pd	0.820
Mf	0.478
Pa	0.839
Pt	0.763
Sc	0.593
Ma	0.405
Si	0.281
HST	0.605
NAR	0.200
BDL	0.142
ANT	0.230
CPS	0.376
PAG	0.631
PAR	0.186
DEP	0.932
STY	0.048*
AVD	0.166
SZD	0.199

* : p<0.05

살펴본 결과, 네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가 없었다. 대상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세 명 이상인 경우는 없었으므로 셋째까지만 적용하였다(Table IV).

5. 검사 대상자들의 결혼 여부에 따른 MMPI 척도 차이

대상자 중 기혼과 미혼의 MMPI 척도간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한 결과, 기혼인 경우에 Pd, Pt, Sc, BDL이 더 높았다(Table V).

Table IV.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 the MMPI Scales on the only child group, first-born group, second-born group and third-born group(n=105)

Factor	f-value	p-value
Hs	0.947	0.421
D	0.472	0.703
Hy	2.327	0.079
Pd	0.356	0.785
Mf	1.484	0.223
Pa	0.021	0.996
Pt	0.022	0.995
Sc	0.169	0.917
Ma	0.444	0.722
Si	1.333	0.268
HST	0.343	0.794
NAR	0.413	0.744
BDL	0.051	0.985
ANT	0.632	0.596
CPS	0.237	0.871
PAG	0.897	0.445
PAR	1.410	0.244
DEP	0.354	0.787
STY	1.389	0.250
AVD	0.570	0.636
SZD	1.116	0.346

* : p<0.05

6. 검사 대상자들의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숫자와 MMPI 척도값 간의 연관성

검사 대상자들의 직계가족 수가 아닌, 본인을 제외하고 검사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숫자와 MMPI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BDL, STY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숫자가 많을수록 BDL, STY 수치가 낮아졌다. 나타난 Pearson 상관관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값은 아래 표와 같다(Table VI).

7. 검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MMPI 척도 차이

남녀의 MMPI 척도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한 결과, 남자에서 Hs, Hy, Pa, Ma, NAR,

Table V. the Difference of the MMPI Scale between the unmarried and the married(Chi-square test)(n=105)

Factor	p-value
Hs	0.761
D	0.509
Hy	0.791
Pd	0.001**
Mf	0.849
Pa	0.803
Pt	0.004**
Sc	0.001**
Ma	0.489
Si	0.718
HST	0.716
NAR	0.995
BDL	0.004**
ANT	0.731
CPS	0.210
PAG	0.948
PAR	0.579
DEP	0.065
STY	0.636
AVD	0.887
SZD	0.824

* : p<0.05, ** : p<0.01

BDL, ANT, CPS, PAR, SZD가 더 높았고, 여자에서 D, Pd, Mf, Pt, HST, PAG, DEP가 더 높았다(Table VII).

8. 검사 대상자들의 연령과 MMPI 척도간의 연관성

검사 대상자들의 연령과 MMPI 척도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Hs, D, Pt, Sc, Si, AVD, SZD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HST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Table VIII).

Table VI. The Correlation between MMPI profiles and the number of family the subjects are currently living with(n=105)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Pearson's)	p-value
Hs	-0.040	0.688
D	0.030	0.759
Hy	-0.034	0.729
Pd	-0.164	0.098
Mf	-0.080	0.418
Pa	-0.070	0.481
Pt	-0.061	0.538
Sc	-0.113	0.252
Ma	-0.067	0.501
Si	0.007	0.944
HST	0.022	0.823
NAR	-0.003	0.978
BDL	-0.222	0.023*
ANT	-0.145	0.143
CPS	-0.162	0.101
PAG	-0.121	0.222
PAR	-0.136	0.168
DEP	-0.006	0.950
STY	-0.216	0.028*
AVD	-0.032	0.745
SZD	-0.049	0.621

* : p<0.05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관계와 결혼여부, 동거하는 가족 수 등 가족관계가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특성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더불어 성별과 연령 등 일반적인 요소들이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형제가 있는 집단과 없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형제가 없는 집단에서 STY(Schizotype) 성격장애 척도값이 높았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관계사고, 마술적 사고, 이상한 지각적

Table VII. the Difference of the MMPI Scale between the subjects with no siblings and the subjects with siblings(Chi-square test)(n=105)

Factor	p-value
Hs	0.757
D	0.919
Hy	0.986
Pd	0.820
Mf	0.478
Pa	0.839
Pt	0.763
Sc	0.593
Ma	0.405
Si	0.281
HST	0.605
NAR	0.200
BDL	0.142
ANT	0.230
CPS	0.376
PAG	0.631
PAR	0.186
DEP	0.932
STY	0.048*
AVD	0.166
SZD	0.199

* : p<0.05

경험, 묘한 언어, 편집증적 사고와 사회적 불안, 친한 친구의 부재, 제한된 정동 등 대인관계 기능의 손상 특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개인의 사회적인 고립과 소외를 촉진시킨다^{7,8)}.

이번 연구 결과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그룹이 외동인 그룹보다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형제 및 자매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가장 친한 친구로서 기능하며, 대인 관계를 연습해서 공감능력과 사회적 이해능력을 발달시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가 있는 경우를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외동과 첫째, 둘째, 셋째 자녀의 그룹으로 나

Table VIII. The Correlation between MMPI profiles and the age of the subjects(n=105)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Pearson's)	p-value
Hs	0,201	0,040*
D	0,196	0,045*
Hy	0,125	0,205
Pd	0,164	0,094
Mf	0,133	0,178
Pa	0,187	0,056
Pt	0,212	0,030*
Sc	0,265	0,006**
Ma	-0,035	0,723
Si	0,249	0,010*
HST	-0,248	0,011*
NAR	-0,149	0,129
BDL	-0,049	0,621
ANT	0,089	0,366
CPS	-0,061	0,535
PAG	0,159	0,105
PAR	0,081	0,411
DEP	-0,016	0,873
STY	0,166	0,090
AVD	0,218	0,025*
SZD	0,312	0,001**

* : $p < 0.05$, ** : $p < 0.01$

누어 비교했을 때는 눈에 띄는 성격특성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으로 볼 때 형제 중에서 몇 째에 해당하느냐보다는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성격 형성, 특히 앞서 외동 집단에서 높았던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특성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조사 당시 시점에서 대상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숫자가 많을수록 BDL, STY 수치가 낮아졌는데, BDL(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경계선 성격장애)은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동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심한 충동성이 성격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장애의 다양한 증상은 개인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렵게 만들며, 이

로 인해 우울, 불안, 분노, 공포, 의심 등의 여러 심리적 증상을 불러온다⁹⁾. 또한 분열형 성격장애의 경우 사회적으로 활발한 대인관계를 갖지 못하고 소외되고 독립되어 있다는 특성을 띤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이 척도들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회 집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친밀한 집단인 가족의 존재가 부재하거나, 그 수가 적어 충분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깔려 상대방을 의심하고, 낮은 자존감과 불안정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반응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혼인 대상자의 경우가 미혼보다 Pd(반사회성), Pt(강박성), Sc(정신분열증), BDL(경계선 성격장애) 척도가 더 높았다는 것인데, 기혼 대상자의 수가 8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한의대 기혼자들의 특성상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여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자에서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조증,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등이 높았고, 여자에서 우울증, 반사회성, 남성특성-여성특성, 강박증, 연기성 성격장애, 수동 공격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가 높게 나타났다. 남자 그룹에서 조증을 비롯하여 건강염려증이나 히스테리, 편집증, 자기애성, 반사회성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의심하고 자기고집을 내세우는 등 좀 더 양적인 성격특성이 나타나고, 여자 그룹에서 우울증을 포함하여 여성특성, 수동 공격성, 의존성 등의 보다 음적인 성격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또한 다른 일반적 특징 중 하나로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히스테리, 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형, 내향성, 회피성, 정신분열성 척도는 높아졌고, 연기성 성격장애 척도는 낮아졌다. 연령과 심리적 특

성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에서, 심리적으로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단축형 행복척도(Co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여 행복감의 연령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을 때 응답자의 전체 행복 점수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¹⁰⁾.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들 집단인 한의대 학생의 특성상 연령이 24~26세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중간 나이가 없고 타 대학에서 졸업하고 온 30~40대의 학생이 소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적으로 불균등한 분포를 나타내므로 통계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미혼 집단에 치중되어 기혼과 미혼의 비교연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이 균등하게 속해 있고 연령적으로도 골고루 분포된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성격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환자의 성격특성이 환자 개인의 형제자매 관계 및 가족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환자의 개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세부적인 관계성을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임상 현장에서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의 가족력을 기본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OO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105명 을 대상으로 형제자매 및 가족관계,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과 MMPI 척도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형제가 없는 집단에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가 형제가 있는 집단 보다 높았다.
2. 외동, 형제가 있는 그룹 가운데서 첫째인 경우,

둘째인 경우, 셋째인 경우인 그룹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MMPI 척도는 없었다.

3. 기혼인 경우가 미혼보다 Pd, Pt, Sc, BDL이 더 높았다.
4.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숫자가 많을수록 BDL, STY 수치가 낮아졌다.
5. 성별간 비교에서 남자에서 Hs, Hy, Pa, Ma, NAR, BDL, ANT, CPS, PAR, SZD가 더 높았고, 여자에서 D, Pd, Mf, Pt, HST, PAG, DEP가 더 높았다.
6. 연령이 증가할수록 Hs, D, Pt, Sc, Si, AVD, SZD는 높아졌고, HST는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아 형제자매가 있느냐의 여부와 형제가 있을 경우 몇 번째 자녀이며 어떤 순위를 차지하는지는 성인 대상자들의 성격특성 및 성격장애 척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연령과 성별과 같은 일반적인 요소들이 성격척도에 더 큰 영향을 끼쳐서 형제 자매관계가 성인 성격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Hwee-Sook Jang. Sibling Relations,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9;22(5):33-48.) (Woon-Yeong Lee, Hwee-Sook Ja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 and Friends Relationships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011;24(4):1-18.)
2. Jeon Eun-Ju, Lee Young Sun.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elf-concep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through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KyungSung University Institute of the Humanities. 2008;13(1):213-234.
3. Ki Seong Park. First-Born Effects on Wage.

- Korean Labor and Business Administration, 2012;31(1):1-19.)
4. Kim ZS.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 Edition.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6;1, 18-22, 31-122.
 5. Kim JH, Park BR, Jang HH, Kim TH, Lyu YS, Kang HW.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MPI Profile and Personality in Patients with Hwa-byung.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9;20(3):189-203.
 6. Lee DW, Kim BK. Study about Personality Traits of Oriental Medical Students in Graduating Class on MMPI(1).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9;20(3):217-27.
 7. Seung Hwan Lee, Young Cho Chung, Min Nam, Kang Joon Lee, Hyun Kim, Sung Man Bae, Joong Kyu Park.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SPQ)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24(3):663-675.
 8. Seon-Ah Yoon. Validity Study of Korean Version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SPQ-B).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0;29(2):491-504)
 9. Ji-Sun Kim, Myoung-Ho Hyun. Emotion Recognition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endencies in Social Scenario. *Study of Adolescence Science*. 2012; 19(2):255-274
 10. Jaisun Koo, Eunkook M. Suh.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1;25(2):143-166

